민추본, 4월 DMZ서 '남북평화 기원법회'

1월 27일, 2026년 사업계획 발표
신계사 템플스테이 건립위 구성
금강산 평화순례길 조성 추진도
성행 스님 "통일 향한 디딤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민추본이 1월 27일 올 한 해 주요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본부장 성행 스님은 이날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 남북불교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성행 스님, 이하 민추본)가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교류 재개 염원이 담긴 기념법회를 올해 4월 강원도 DMZ지역에서 봉행한다.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을 공론화하고 남북 불교교류 사업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포부다.

민추본은 1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 해 주요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남북관계의 큰 틀을 존중하면서도 민간 차원에서 함께할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공개된 주요사업에 따르면 민추본은 시의성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불자들의 평화통일 의식을 확산하고 남북 간 신뢰회복과 교류 재개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자 4월 초 DMZ박물관 대강당 등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발원 남북 평화·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금까지 서울에서 진행해 온 기원법회를 지역으로 확장, 첫 지역법회로 강원지역을 선정했다.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 맞게 금강산 관광 재개를 다시 공론화하고 정부와 통일부에 적극 제안함으로써 남북불교교류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게 민추본의 설명이다.

1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에 이어 2부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 금강산 가는 길 걷기'에서는 DMZ 박물관-고성통일전망대 구간인 민통선 내 해안도로를 40여 분간 걷는 시간을 갖는다.

민추본은 추후 지역에서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교구본사 및 주요 사찰, 지자체, 평화통일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해 평화통일의 원력을 함께 세워 간다는 계획이다.

남북불교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사업에 대한 계획도 공개했다. 민추본은 남북불교교류의 성공적 사례인 금강산 신계사를 남북교류협력 자원이자 전통문화유산·관광 자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계사 템플스테이 복합문화공간' 건립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북한의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와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북측에 제안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금강산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을 활용한 전략과 계획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성행 스님은 "대북교류 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한다"면서 "남북관계가 열리는 대로 신계사 템플스테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 불교평화통일 아카데미(4월, 인제 만해 마을 등지) △10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및 해외 평화순례(11월 예정) △남북접경지역 평화명상 걷기(9월 말, DMZ) △제3차 남북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포럼(10월 말 예정)도 예정돼 있다.

지역 사찰과의 협업으로 운영되는 조직 강화 사업인 평화통일도량 조직은 100개 이상의 도량을 목표로 한다. 또 제주 본부 설립을 추진, 지역 불자들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 단위의 통일·평화 활동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행 스님은 "남북불교교류, 평화 및 통일사업은 단기간의 성과를 목표로 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이며 단절되어서는 안 될 소중한 통로"라면서 "앞으로도 불교계와 종단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는 1월 27일 '출가상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위촉식에 참석한 포교국장 도진 스님, 출가상담사 혜원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출가상담사 은산 스님, 출가상담사 여옥 스님(왼쪽부터).

조계종 출가상담사에 은산·여옥·혜원 스님

포교부, 1월 27일 위촉식
임기는 12월 31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는 1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부장 집무실에서 '출가상담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은산 스님, 여옥 스님, 혜원 스님을 재위촉했다. 임기는 12월 31일까지다.

출가상담사는 종단 행자교육(입문·수계 교육) 시 행자들을 위해 출가 상담전화(1666-7987)와 출가사이트(http://monk.buddhism.or.kr)에서 상담을 수행한다. 또 만해백일장, 연등축제 전통문화마당, 서울·부산·대구 불교박람회, 대불련 영캠프, 불교문화대전, 행복바라미 선명상 페스타 등에서 부스를 운영, 현장 홍보를 진행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날 위촉식에서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출가자 수 증가를 위해 범종단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간절한 원력을 가지고 출가상담에 임해 달라"고 했다.

포교부는 올해 좀 더 체계화된 출가상담을 위해 다양한 사례가 담긴 〈출가상담 메뉴얼〉을 발간하고 대중이 모이는 행사에서 현장 출가상담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봉녕사승가대 졸업식 "행복 이끌 길잡이"

승가대서 7명·전문 6명·연구 1명
총무원장 표창에 도명·혜명 스님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1월 27일 봉녕사승가대학 제52회 졸업식과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 제24회 전문과정·제11회 연구과정 졸업식을 열고 학인들이 모든 이를 행복으로 이끄는 수행자로 성장하길 발원했다.〈사진〉

봉녕사승가대학에서는 선본·무연·고원·도명·능인·진감·묘안 스님 등 7명이 4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증서를 받았으며, 졸업논문을 부처님 전에 봉정했다. 이번 졸업생은 차명상코칭 1급 자격과 진감초의 다맥 제7대 전수증을 받았고, 사찰음식지도자 1급 자격도 함께 취득했다.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에서는 효석·현담·혜명·승원·여요·여여 스님 등 6명이 2년의 전문과정을 이수했다. 이 가운데 3명이 차명상코칭 1급 자격을 취득했다. 연구과정에서는 여서 스님이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증서를 받았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스님들에게는 표창장도 수여됐다. 총무원장 표창은 봉녕사승가대학 도명 스님과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 혜명 스님이 수상했다. 제2교구 본사 용주사 교구장 표창은 봉녕사승가대학 능인 스님과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 승원 스님이 받았다.

진상 스님은 "4년간의 수행을 바탕으로 산과 물 같은 수행자가 돼 모든 이의 길을 열고 마음을 씻어 주는 행복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김내영 기자

"청년이 불교 주체 되는 거버넌스 구축"

범불교시국회의 3차 토론회
주체성 강화·활동가 육성 제안



청년의 불안과 좌절은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낸 구조적 고통이며, 불교가 청년의 고통에 답하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는 1월 27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에서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한국불교 성찰과 전환'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불교, 청년의 고통에 답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청년의 삶을 둘러싼 구조적 조건과 그로 인한 고통을 불교적 관점에서 성찰하는 자리였다.

발제에 나선 이명호 인드라망연구소장은 "오늘날 청년 문제는 취업이나 주거의 어려움 같은 개별 사안의 나열이 아니라, 표준적 생애 경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청년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해 온 구조적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청년세대를 단일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기존 담론과 청년정책이 취업-주거-자산 형성이라는 획일화된 생애주기에 맞춰져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불교계의 청년 문제 대응 방식도 살폈다. 이 소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템플스테이와 청년밥상 등이 쉼과 회복, 위로를 강조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짚고 "청년은 참여자이자 방문자로 남을 뿐, 대안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소장은 청년의 고통을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적 고(苦)의 개념으로 해석하며, 이를 '사회적 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고통을 '사회적 고'로 인식할 때, 불교의 역할은 위로가 아니라 구조와 문명을 전환하는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종학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 포교팀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종단 차원의 '청년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박 팀장은 "사찰은 이제 고립된 청년들을 서로 연결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학생·청년 포교의 주체성 강화 △사찰 공간의 '청년 공유 거점' 전환 △사회적 전법을 위한 청년 활동가 육성 필요성도 짚었다. 여수령 기자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최고위과정과 함께하는
붓다자나 명상
붓다자나는 닛다싸왓투 경에서 "이것은 내가 스스로 깨닫고 실현하여 선언한 것이다"라고 전하는 것으로 석가모니 붓다를 실현한 성불의 비밀이며 고따마의 수행경험을 순차에 따라서 집대성한 여래의 정법명상입니다.
이곳에는 붓다가 되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일곱 단계 진리의 문에 들어가 법신을 구족하고 서른 두 개의 비밀금고를 열어 영적성장에 도달하며 백 마흔 한 가지 담마토크로 기록된 아가마를 실천하라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최고위과정에서는 이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사찰의 청년불자 증가를 돕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수행자 여러분의 수희동참을 바랍니다.
모집대상 스님 또는 교역직 종사자
모집기간 2026년 1월 ~ 2026년 2월
교육내용 붓다자나 전문가 과정
교육기간 1년(2학기, 매주 수요일)
모집인원 선착순 20명
개강일시 2026년 3월 11일(수) 오후 2시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최고위과정
입학문의 책임교수 010-8775-2340 / 학사운영실 02-2260-8887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